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 지역 ‘힐링 명소’ 부상

연간 1만5000여명 이용해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속요가 등 산림자원 활용
“건강 증진·정서 안정 제공”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1만5000여명이 이용하는 대표 산림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 치유의 숲’은 광양 백운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치유의 숲 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건강 상태와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 방문객들이 숲속 명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램을 운영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대상의 ‘한결푸두결푸’, 직장인 대상의 ‘여우野

놀자’, 장애인·어르신 대상의 ‘썬썬썬’, 가족 대상의 ‘다福다福’ 등이 있으며, 갯년기 여성, 암 경험자,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

께 운영 중이다.

각 프로그램은 이완체조, 맨발 걷기, 숲속 요가, 족욕, 해먹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이용객의 신체 활력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백운산 치유의 숲’은 건강 상태와 계절에 따라 선택 가능한 7개 노선, 총연장 10.3km의 치유숲길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 시간은 하루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2시30분~4시30분)이며, 동절기에는 실내 중심 프로그램으로 조정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이다.

체험 인원은 회당 15명 내외이며, 사

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개인 기준 5000원, 단체(15인 이상)는 4000원이다. 광양시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체험 예약은 ‘백운산 치유의 숲’ 홈페이지(<http://bwmt.gwangyang.go.kr>) 또는 전화(061-797-4718)를 통해 가능하다.

심현우 광양시 휴양림과장은 “‘백운산 치유의 숲’은 단순한 숲길이 아니라, 전문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산림 자원을 통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내달 3일 광양읍 서천변서 어린이날 행사

전라남도 광양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3일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2025 광양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어린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광양시청

소년관현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전한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표창과 내빈 축하 퍼포먼스가 마련돼 있으며, 식후에는 장구 공연, 풍선아트와 버블쇼,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행사장 전역에서는 △에어바운스 놀이터 △실제 장비를 활용한 소방안전체험과 경찰 체험존 △아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교육 부스 △가족 모두 참

여할 수 있는 미니게임 △서산나래 아이싱쿠기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 등 4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솜사탕, 팝콘, 콜팝, 아이스크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준비돼 있고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공간도 함께 마련돼 어린이에게는 즐거운 기억을, 가족에게는 따뜻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학습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전라남도 광양시가 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광양시는 올해 총 301명(일반 269명,

장애인 32명)을 선정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1차 접수는 오는 5월14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2차 모집은 6월 중 진행된다. 어르신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시민으로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jeonnam)’, 등록장애인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광양시청 커뮤니티센터 5층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을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NH농협 채용카드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해당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관 목록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평생학습도시 광양 누리집(www.gwangyang.go.kr/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이용 환경이 마련됐다.

박순옥 광양시 체육과장은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과 발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는 운동으로, 새롭게 조성된 황톳길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이용을 위해 맨발 산책 후에는 반드시 세족장에서 발을 씻고, 발 상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영의암 체육공원에 황톳길 개장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

전라남도 광양시는 광영의암 체육공원 내 황톳길을 2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광양시 광영의암1로

17 일원 광영의암 체육공원 내에 연장 120m 규모의 황톳길을 조성했다.

이번 황톳길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황토 소재로 시공됐으며, 세족장과 에어건, 안내 표지판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돼 안전하고 쾌적한



지난 23일 광양중앙로타리클럽 회원들이 광양읍 내 위기가구에서 중고가전을 옮기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중앙로타리클럽, 위기가구에 중고가전 나눔

전라남도 광양시는 최근 광양중앙로타리클럽이 광양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중고가전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섰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중앙로타리클럽은 2015년부터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후원을 통해 접수리봉사, 광양YWCA 급식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광양읍 및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활가전이 부족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번 중고가전 나눔은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혜 가구는 냉장고 고장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노인 부부 가구와 조손 가구다.

광양중앙로타리클럽은 이들 가정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했

다.

박기홍 광양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읍 맞춤형복지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형재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고 있는 광양중앙로타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권희상 광양읍장은 “귀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신 광양중앙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